

교회와 권력: 말함과 침묵의 권력배치

최 대 광

정동제일교회, 감신대 강사

〈요 약〉

한국교회의 정치편향과 비 역사성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교회권력 현상에 대한 미시적 탐구는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표면위로 떠오른 한국교회의 우경화현상이 어떠한 권력적 틀로 표면화 되었는지에 관해서 추적한다. 이에 관한 방법론으로 이 논문은 미셸 푸코의 계보학적 연구방법을 소개하며, 근세에 영향을 미쳤던 중세의 사목권력을 “말함”과 “침묵”의 권력배치로 파악한다. 이 논문은 푸코의 사목권력 현상을 한국의 가정문화와 교회 문화를 이해하는데 적용한다. 조선시대를 거쳐서 형성된 한국 가정의 종교문화인 유교와 샤머니즘은 말하는 쪽과 침묵하는 쪽을 양분한다. 즉, 말하는 쪽을 지배하는 쪽, 듣는 쪽은 복종하는 쪽으로 양분 한 뒤 이를 유교와 샤머니즘, 남성과 여성의 권력배치로 이해하면서, 이를 한국교회의 설교자와 청중의 권력구조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아멘’이라는 ‘말함’을 유도하고, 청중들은 설교자의 설교에 ‘아멘’이라는 ‘말함’을 반응하면서, 말함과 침묵의 구조는 상호 교류되고, 상호통제가 되어 나간다. 이 말함과 침묵의 상호통제는 반공주의와 성공지향주의로 보편화된 교회문화를 극복하는 힘이 되지 못하고, 이 문화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함과 침묵의 권력구조를 재 구성해 내지 못하는 한, 한국교회의 우경화와 반역사적 행태는 지속될 것이다.

핵심 주제어: 영성, 종교, 교육, 역사

I. 들어가는 말

한국의 개신교는 중병을 앓고 있다. 과거와 같은 드라마틱한 교인수 증가는 상실된 가운데, 교회는 ‘성장’만을 외치고 있다. 대형교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시청앞이나 서울역 광

장에 노골적인 우익집회가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진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오히려 신학과 성서 고고학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기총은 이들을 ‘어둠의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성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과, 교회의 정치화와 폐쇄적 성장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의 흐름을 읽기 보다는, ‘악의 세력’과 ‘세상’ 그리고 ‘인본주의’와 싸우려는 십자군식 정복주의만 보일 뿐이다. 인터넷에서 ‘개신교’는 이미 누리꾼들의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스스로 ‘개신교인’이라고 커밍아웃하는 상태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집중포화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결단이다.

지난 2009년 2월 19일 김수환추기경이 ‘선종’했을 당시, 장례식까지 약 40여만명의 사람들이 조문을 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들 중 다수는 천주교인 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종교인의 죽음에 자발적으로 40만명의 조문객들이 몰렸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리고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한 목소리로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다. 개신교를 대할 때와는 달리 인터넷 곳곳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시대’가 ‘악’한 것이 아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 보다, ‘종교’ 곧 신성함에 대한 갈망이 강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병들어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현상은 교회안의 미시적 권력배치 때문이라는 것을 밝힐 것이다. ‘권력’에 대한 이해를 위해 미셸 푸코의 계보학과 사목권력 pastoral power를 논의할 것이다. 푸코와 함께 미국의 인류학자 라우렐 켄텔의 종교문화학적 시각으로 한국가정의 구조를 살펴볼 것이고, 이를 푸코의 권력배치인 ‘말함’과 ‘침묵’을 통해 한국개신교회의 문화와 권력이 형성 되었는지를 밝혀볼 것이다.

II. 거리로 뛰쳐나온 기독교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개신교회 (사실 한국교회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는 2003년부터 “정치참여”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이들을 선도하는 목사들의 몇몇 설교와 주장들을 읽어 보도록 하자:

전교조의 5대 강령 중 하나가 50대 기업을 까부수고 50대 교회도 파괴하라는 겁니다. 왜? 저 잘사는 놈들, 대기업가들 다 까부시고 나눠 갖자. 좌경사상에 물든 노동자들은 사장을 노동자 피 빨아 먹는 흡혈귀라고 생각해요. ... 우리 정부는 온갖 세금을 잘사는 사람들에게 붙여서 특별히 강남 사람들을 못살게 하려고 해요. 좌경사상은 있는 사람들 때려잡아서 다 평등하게 살자는 겁니다. ...사학법까지 만들어서 학교 세운 사람이 이사장도 못하게 하고 교육이념도 다 없애버리면 나라 장래가 없어요. 기독교 때려잡자는 얘기고 공산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¹⁾

1) 강인철, 『한국개신교회와반공주의』(서울: 중심, 2007), 15-16쪽; 김홍도 목사의 2004월 11월 7일 주일예배 설교 중 일부.

김정일의 핵폭탄 위협으로 이 나라가 공산화 통일되어 7,000만 명이 악독한 김정일의 독재하에서 고통 당하다 죽는 것 보다, 50만명, 100만명이 죽는 한이 있어도 김정일과 핵폭탄과 미사일을 깨뜨려버리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전쟁이 언제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²⁾

최근 수년간 이념논쟁으로 비화된 극심한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정권의 핵심인사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고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도록 도와준 우방국 사령관을 ‘민족의 원수’로 부리는 무리들이 공공연히 세상을 활보하는 무법천지가 연출되고 있다.³⁾

위 글들은 한신대의 강인철교수가 쓴 『한국개신교와 반공주의』에서 인용한 글들을 재인용한 것이다. 이 책은, 정치참여를 거부했던 과거의 “보수적” 기독교가 “참여적” 기독교로 바뀌고 있지만, 약자에 대한 보호와 민주화를 위한 ‘참여’가 아닌 기득권자들을 대변하는 우경적 ‘참여’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의 중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강인철은교회의우경적정치참여가오늘날갑자기발생된것이아니고, 이미 한국선교의 초창기부터 ‘반공사상’은 교회의 중요한 사상적 뿌리였고, 이것은 분단을 통해서 강화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의 시청 앞 광장과 부산역 광장 등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우익단체들과 더불어 대규모의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2월 보수적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 상임대표는 “대선후보 검증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기독교 정책을 통해 후보를 검증하고 투표의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개신교계 최대 교단연합체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이용규 대표회장이 이번 대선에서 개신교적 시각에서 후보들의 정책 검증 및 투표기준을 제시 하겠다고 선언해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보수적 단체인 한기총이 선거 과정에 개입할 경우 다른 교파나 종단도 선거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례적으로 종교가 선거에 공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14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예전 대선에서는 (교계가) 옆드려 기도만 했지만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 정책을 마련해 이를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정책을 수용하는지, 대통령이 된 뒤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독교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는 ‘기독교 정책 포럼’을 구성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우리는 절대로 어느 정당이나 후보 개인에 대해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후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2) 위의 책, 18쪽. 김홍도 목사의 2003년 6월 15일 금란교회 예배의 설교 중 일부.

3) 위의 책, 21쪽. 2006년 5월 1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원로회가 발표한 시국성명서 중 일부.

이 선언이 나온 후, 몇몇 대형교회와 정치교회들은 담임목사의 설교를 통해 노골적으로 당시의 정부를 비판하였고,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감리교회의 김홍도목사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후보를 공개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에 임하고 있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건 교회 장로이기 때문인가요?

“장로이기도 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만 보더라도 능력 있잖아요. 현대그룹도 그 사람이 그만큼 성장시켜 놓은 거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고생을 무지무지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도 잘 아는 사람이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목사가 공공연하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주로 기도할 때 얘기하지요. 개인적으로 교인들이 이명박장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얘기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지.”

—이명박 씨와는 원래 친분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 사람은 장로교인 소망교회 장로고, 나는 감리교 목사고.” (이명박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설교를 했지요.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줬지.”⁴⁾

김홍도 목사와 같은 ‘용감한’ 지지선언의 저편에, 더욱 세련된 지지도 있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는 뉴욕 퀸스교회에서 열린 할렐루야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이번 선거는 나라의 운명을 가늠할 만한 정말로 특별한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주셔야 되고,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셔야 하나면,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 주민등록증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서서 한 표를 행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잘 곳이 없다면 사랑의 교회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교회 수양관을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표가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을 향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연말 대선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100퍼센트 투표 참여하기, 이거 하지 않으면 평양 100주년 부흥의 역사가 새로운 은혜의 물길로 딱 연결이 돼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⁵⁾

설교를 들어보면, 공개적으로는 이명박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우회적인 지지의사를 표현했던 것이다.

위에 언급한 교회와 목사들은 80년대 기독교가 인권을 외칠 때, 침묵하며 신앙적 삶과

4) 김지방, 『정치교회』(서울: 교양인, 2008), 109-110쪽.

5) 뉴욕 퀸스교회 홈페이지(www.queensch.com) 할렐루야 집회 제 3일 실황 음성파일. 위의 책, 120쪽에서 재인용.

세상적 삶을 이분했었다. 그리고 교회의 정치참여에 반대했으며, 개인구원을 절대화 했었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와 권력지향적으로 변했다. 거의 드라마틱하며 때로는 코믹한 수준이다. 2007년 3월 3일<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정익 목사의 인터뷰다:

“1960년대 민주화를 위해 많은 학생이 피투성이가 될 때 저도 학생이었지만 용기가 없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교단이 민주화 탄압을 외면한 죄책 고백에 앞서 민주화 과정에서 방관했던 제 잘못부터 고백합니다.”

3.1절을 맞아 성결교회 죄책 고백문을 발표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정익목사는 1일 시무 중인 서울 신촌성결교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기성은 이번 고백문에 일부 교단 인사가 신차참배에 가담한 것과 민주화운동 탄압을 외면한 것, 80년대 신군부 등장을 수수방관했던 점 등 세 가지 잘못을 담았다.

... 행동하는 신학을 강조한 독일 본회파 교수의 《죽음 앞에서》를 읽은 이후 설교와 삶을 통해 나와 교회, 교단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저극 나서고 사회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불의에 침묵했던 지난날을 교단과 함께 반성하고 성결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라고 밝혔다.⁶⁾

위의 글이 코믹하다는 것은 이미 이 책의 저자 김지방이 밝혔듯이, “독일 목사 디트리히 본회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와 히틀러의 부당함을 깨닫고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저항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 개신교인들이 정치도 신앙의 영역임을 깨달은 것은 애석하게도 독재정권 치하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으로 독재자가 물러난 뒤였다.”⁷⁾ 과연 왜 이런 형태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에 관해서 이들의 ‘신앙’과 ‘체험’에 관해서 이야기 할 수 없다.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변화’의 길로 들어선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Ⅲ. 말함과 침묵: 푸코의 계보학적 시각과 사목권력의 탄생

현대 종교학의 거장 밀체아 엘리아데는, 종교적 시간과 일상적 시간을 이분하면서, 종교적 시간이란 종교체험의 ‘원형’으로의 회귀적 성질을 지닌다고 하였다:

새롭게 발견한 땅에서 조차도, 의례적 회귀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의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모델은 우주적 의식과 같은 전형을 답습하는 것이다. 인

6) 김지방, 앞의 책, 45-46쪽.

7) 위의 책.

간은 원형에 입각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다. 도시와 궁전이 우주적 모델을 모방하는 것은 물론, 물을 대주는 강과 음식을 대주는 들판도 역시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⁸⁾

공간적 ‘건축’만 원형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성’역시 과거의 원형적 체험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우주발생의 반복”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니니안 스마트는 종교의 참여관찰에 관한 예에서 ‘미사’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의례로서 미사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참여 관찰자는 종종 실황 중계를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관찰자는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권능에 다가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관찰자는 로마 카톨릭에서 빵과 포도주가 단순히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를 통해 정말로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¹⁰⁾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미사는 일상과 일상적 공간을 넘어 최후의 만찬으로 ‘회귀’하게 하며, 2000년 전의 사건은 오늘 이 자리에 재현된다는 것이다. 이 체험으로 참여자가 소유한 종교의식 religious consciousness은 세속적 삶 한 복판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와 에너지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엘리아데와 니니안 스마트는 종교적 체험의 ‘회귀’를 종교학적 시각에서 보여주었지만,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그들이 말하는 원형 혹은 ‘기원’origin에로의 회귀에 관심하지 않고 ‘출발점’ beginning에 관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인류학자 레비노프가 최초로 묶은 “푸코 글 읽기” Foucault Reader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푸코와 촘스키와의 대담을 소개하고 있다:

노암 촘스키에 있어서 인간은 인간이다. 이 관점은 절대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학적 이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연구에서 출발한 노암 촘스키는 어떻게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언어를 배우며 이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파했다. 촘스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대답만이 가능할 뿐이다. 즉, 우리 인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종적으로 사유를 지배하는 생리학적 근간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개개인의 다양한 체험이 결합되어서 통일적 언어로 재구성된다고 하였다. 촘스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의 사회와 지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행동들을 통제한 대중적 도식이라던가, 선천적인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셸 푸코는 인간성과 과학에 관해서 모두 반대했다... 인간성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어떻게 인간성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작용을 했는가?”로 질문을 바꾸었다. 18세기의 생명과학을 예로 들면서, 푸코는 어떤 독특한 역사적 순간에 독특한 훈련방식이 작용했는가와 일상적인 ‘생명’이나 ‘인간성’등의 광의적 개념과 구분했다.¹¹⁾

8) Mircea Eliade,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10.

9) Ibid. p.17.

10) 니니안 스마트, 김윤성 옮김, 『종교와세계관』(서울: 이학사, 2006), 46쪽.

푸코의 시각을 종교적 논의로 풀어 본다면 그는 “‘종교의 원형’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 ‘개념’이 어떻게 각 종교에서 ‘독특한’ 상황에 작용을 했는가”가 그의 사유방식인 것이다. 즉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원형으로의 ‘기원’이 푸코의 주 관심사가 아니라, 그 ‘출발’점이 ‘종교인’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활동하고 있는가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그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그의 계보학적 연구는 신에 대한 신앙이라는 기독교신앙의 ‘출발점’이 어떻게 서구의 통제와 훈육의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나갔는지 추적하는 것이다.

동경에서 발표한 한 강의에서 미셸 푸코는 “사목권력 (pastoral power)”을 기독교가 로마에 소개한 새로운 테크닉 혹은 새로운 권력의 메커니즘¹²⁾이라고 소개했다. 이 사목권력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독특한 이미지로 등장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자:

기독교에서, 양과 목자와의 연관은 개인적이다. 개인적으로 목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의 의지가 이루어 지는 것은 율법적으로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거나, 그것과 연속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원리적으로 ‘그’의 뜻이기 때문이다. 카시안의 책인 “수도원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도사가 교도사의 엉뚱한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¹³⁾

기독교 이전 ‘목자’의 이미지는 ‘율법’의 수행자였지만, 바울에 의해 신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면서 신이나 교도자의 ‘의지’가 주권의식을 지니고 권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세시대 이 사목권력의 핵심은 ‘몸’에 관한 통제의 테크놀로지로 발전했다. 왜냐하면, 몸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즉 ‘몸’에 대한 통제는 신적인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체’는 몸에 대한 윤리적, 정신적, 통제에 의해서 형성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사목권력에 의한 주체는 관조자의 ‘말함’과 교도자의 침묵, 또한 교도자의 말함과 관조자의 침묵으로 이어지는 고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푸코의 말을 들어보자:

수도사는 무슨 일을 하건 심지어는 죽을 경우에도 자신의 교도자敎導者의 허락을 얻어야 했다. 허락을 받지 않은 행위는 모두 도둑질이다. 수도사가 자립할 수 있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 자신이 교도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러한 복종의 정신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그는 복종의 정신을 스승에 의한 행위의 완전 규제라는 생의 영원한 희생으로서 유지해야 한다. 자기는 복종을 통해서 자기를 구성해야 한다.

수도원 생활의 두번째 특징은 관상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수도사의 의무는 자신의 사고를 끊임없이 신이라는 최종 요점을 향해 돌리고, 자신의 마음이 신을 편안히 볼 수 있을

11) Paul Rabinow ed.,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s, 1984), pp.3-4.

12) Michel Foucault, *Religion and Culture*, Jeremy R. Carrette(Eds.) (NewYork: Routledge, 1999), p.121.

13) Ibid. p.142.

만큼 충분히 청정한지 확인하는 일이다. 이 목적은 신에 대해 영원히 관상하는 일이다.¹⁴⁾

푸코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가 지배하는 중세의 유럽에서는 자신을 신의 시각으로 ‘관상’ 즉 ‘관조’함으로써, 주체는 ‘객체’화되고, 신이라는 ‘주체’가 객체화된 자신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독특한 테크놀로지가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감시하는 관조의 결과는 교도자 혹은 스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통해 ‘고백’해야 한다. 그런데, 푸코가 복종과 관상을 둘로 구분했지만, 사실 이 둘은 하나다. 즉, 자신의 몸을 신의 시각으로 관조하면서 대상화 시킨 데이터는 ‘교도자’에게 ‘복종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침묵해야 할 것이 ‘말함’으로 변하고, 이 ‘말함’이 결국 자기 자신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고백 하여라’ 라고 교도자는 말하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접촉과 눈빛을 지니지 말고, 음탕한 말과 생각을 삼가 해야 한다.”¹⁵⁾ “이러한 사목적 관련을 위한 열망과 신비주의와 천년왕국의 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¹⁶⁾ 눈에 보이지 않는 ‘주체’에 의한 몸에 대한 통제와 침묵과 말함을 통해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식이야말로 기독교적 인간형이었으며, 유토피아를 향한 꿈의 동력이었던 것이다.

중세의 사목적 권력이 근세로 진행되면서, 보이지 않는 절대자는 “국가적 이성”¹⁷⁾이 되었으며, 교도자는 “경찰권력의 이론”¹⁸⁾으로 변형된다. 신이 세상을 통치함과 같이, 국가권력은 사목적 훈육시스템으로 혹은 ‘통제’와 ‘감시’를 통해 국가를 통치해 나가고, 경찰권력의 확산으로 개개인은 ‘말함’과 ‘침묵’을 통해 스스로를 감시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가적 이성의 교리는 신이 세상을, 아버지가 가정을, 상사가 그의 공동체를 통치하는 것과 국가 정부의 원리와 방법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의 내린다. 경찰력의 교리는 국가의 합리적 활동과 행동을 정의내리며, 일반적인 통제기구가 가세한다.”¹⁹⁾

신의 위치를 ‘국가적 이성’이 대체하고, 경찰권력이 국가적 이성의 대리인으로 훈육적 통제를 만들어 나간다. 현대 유럽의 훈육적 권력은 결국 신에 대한 관상과 말함 그리고 침묵을 통한 자기 통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14) 미셸 푸코 외, 이희원 옮김, 『자기의 테크놀로지』(서울: 동문선1997), 80쪽.

15) Michell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Vol.1*. (New York: Random House, 1990), p.21.

16) Michell Foucault, *Religion and Culture*, p.145.

17) Ibid.

18) Ibid.

19) Ibid.

IV. 말함과 침묵: 한국교회의 미시적 권력배치

서구와는 달리, 기독교의 영향력이 미세한 한국에서는 오히려 봉건시대에 존재하였던 종교의 내재성이 기독교 안에서 어떠한 자아 권력 형태로 바뀌어 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목권력이 한국의 근대성과 연결되어서 권력의 통치 테크놀로지가 성립 되지는 않고 있으나, 역으로, 봉건시대의 권력형태가 교회 안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해 나가는지 살펴 볼 수 있다.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 라우렐 켄텔은 종교문화적 시각으로, 한국의 가족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초기의 민속학자들은 한국 가족종교에서는 ‘두개의 종교적 조직이 있다고 한다. 남성들은 굳은 표정으로 근엄한 조상숭배를 한다. 여성들은 집안의 정령들을 섬기며 귀신들을 쫓아낸다”²⁰⁾ 켄텔은 이와 같은 현상을 “두개의 전통들이 한 지붕하에 있다”²¹⁾라고 표현하였다. 이 같은 것은 일정부분 한국의 종교다원주의적 상황을 설명한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켄텔은 이 문화의 전통에서 여성을 소외시키는 성차별적 문화를 읽어내고 있다: “동양의 철학자들과 몇몇 인류학자들은 어둠 곧 음은 빛 곧 양의 ‘반대’라고 하였다.”²²⁾ 즉 여성은 여성 스스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반대’ 이미지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남성의 제사 (양)와는 달리, 여성과 관련된 귀신이나 정령은 ‘어둠’으로 묘사된다. 어둠의 영역은 ‘여성’으로 빛의 영역은 ‘남성’으로 변형된다. 이와 같은 두 전통이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지배종교인 샤머니즘이 유교에 밀려 구석으로, 어둠으로 밀려나가, 역시 어둠의 영역으로 밀려난 여성들과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말함과 행동의 영역 그리고 침묵과 수동의 영역이 성적 이분으로 재구성 된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종교전통을 때로는 억압했지만 거의 대부분 그들의 활동반경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즉, 근엄한 표정의 유교식 제례는 가정의 주요사를 좌지우지 했지만, 내면 한 구석의 종교적 두려움은 유교로 다 덮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권력 형태, 곧 “근엄한 외적 권력”과 “어두운 내적 권력”의 한국의 개신교회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권력 배치를 형성해 나갔다. 정동제일교회의 경우 2008년 당회에서 발표된 총 입교인수는 2488명으로 남성 1040명, 여성 14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도 267명의 남자 집사, 335명의 여자 집사, 112명의 남자권사 그리고 225명의 여자권사가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30명의 장로 중에서 남자장로는 23명, 여자는 7명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 되었다.²³⁾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반적인

20) Laurel Kendall, *Shamans, Housewives, and other Restless Spiri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7), p.26.

21) Ibid. p.25.

22) Ibid. p.23.

23) 2008년도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당회자료, 1-4쪽 참조.

로 일어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교 감리교회의 경우 전체 교인 중 여성은 1435명, 남성은 1078명이다. 이 중 여자 권사는 201명, 남자권사는 133명, 여자집사는 260명, 남자집사는 169명, 그리고 남자장로는 26명, 여자장로는 9명 이었다.²⁴⁾ 위에서 라우렐 켄텔이 지적한 부분, 곧 남성의 조상숭배라는 외적인 종교의례와 여성의 귀신숭배라는 한지붕 두가족의 종교전통이 근엄한 남성의 외적 권력과 여성의 어두운 내적권력으로 과급되어 나간 것을 볼 수 있다. 교회의 대소사는 ‘남성’장로에 의해서 결정되고, 여성 집사와 권사들이 이 결정된 일을 해 나가는 상하 권력이 형성된 것이다.

이 ‘근엄함’과 ‘어두움’ ‘결정권’과 ‘침묵적 따름’ ‘말함’과 ‘침묵’ ‘권력’과 ‘복종’의 공존은 한국의 개신교의 미시적 권력배치를 이해해 나가는데 중심 열쇠다. 푸코에 의하면, 말함과 침묵이 ‘관조적’ 신앙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났지만, 한국 교회의 경우 ‘말함’과 ‘침묵’은 권력의 ‘능동’과 ‘수동’으로 배분된다. 즉, 말하는 쪽과 침묵하는 쪽은 권력의 상하를 상징하는 것이다.

남자 장로와 여자 평신도의 권력배치는 목사 곧 ‘말함’과 평신도 ‘침묵’의 권력배치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권력배치는 담임목사 밑에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목사와 전도사의 ‘침묵’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함’과 ‘침묵’은 교회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선교국에서 나온 소책자 『비전교회를 위한 비전』에 의하면, 미자립교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체교회 자립의 의미에 대하여 재정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우나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신설)’제 1장 총칙에 전년도 경상비 결산액 2,500만원 미만의 교회를 미자립교회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²⁵⁾

결산액 2500만원 이하의 교회에서 교회의 각종행사와 유지비 목회자 사례비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교회는 서울의 중대형 교회(들)에게 월 1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자립교회의 ‘젊은’ 목사들은 중대형 교회 목사의 ‘말함’에 ‘침묵’할 수 밖에 없다. 같은 책자에서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의 미자립교회 수가 공개되어 있다. 책자에서는 2002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미자립 교회의 수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결코 커다란 변화가 아니다:²⁶⁾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 전체 교회수	5,337	5,386	5,489	5,620	5,692	5,507	5,605
2) 미자립 교회수	2,081	1,961	1,935	2,159	2,152	2,160	2,146
1) / 2) %	39.0	36.4	38.4	38.4	37.8	39.2	38.3
전년대비 증감수	+61	-120	-26	+224	-7	+8	-14

24) 2008년도 기독교 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당회자료, 4쪽, 37-49쪽 참조.

25)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비전교회를 위한 비전』(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선교국, 2009), 3쪽.

26) 위의 책.

2008년도 한 해에만, 전체교회의 38.3%가 미 자립 교회다. 미자립을 면하고,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없는 교회를 제외한다면, 한국 교회의 ‘말함’ (권력)은 중대형 몇몇 교회들에게만 할당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의 정치참여에 대다수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교와 샤머니즘의 공존에서 탄생한 ‘말함’과 ‘침묵’이 위의 ‘거시적’ 권력담론 보다, 좀 더 미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 안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에서 말한 대규모의 ‘교회정치’로 확산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말함—권력 / 침묵—복종: 교회에서의 권력이동

푸코가 파악했던 서구의 지배권력은 카톨릭의 ‘관상’을 정치화한 사목권력이었지만, 한국 개신교 안에는 “관상기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990년 가톨릭으로부터 빌려온 용어인 ‘영성’spirituality도 과거 ‘심령’의 대체어로 사용되고 있다. 개신교에서는 ‘관상’의 위치에 ‘통성기도’가 들어서 있다. ‘관상’은 자신의 죄된 몸을 신의 시각에서 관조하는 하며, 말할 수 없는 것 (침묵)을 교도자나 스승에게 말하는 ‘고백’으로 주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었지만, 교회사학자 이덕주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의 통성기도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모두’에게 말하는 “공개적 죄의 자백”에서 출발하였다고 한다: “부흥운동 기간중에 나타난 또 다른 ‘토착’신앙으로 ‘통성기도’가 있다. 부흥운동이 원산에서 시작된 후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공개적인 죄의 자백’ 이었다. 이 같은 ‘통회자복’이 평양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통성기도’로 발전하였다. 통성기도가 처음 보고된 것은 1907년 1월 6일에 시작된 평양부흥회 이튿날 이었다.”²⁷⁾ 스승에게 자신을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제 3의 눈으로 관조하던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통회자복’에 의해서 ‘만인’이 제 3의 눈이 된 것이다. 이덕주의 또 다른책에서, 그는 고백자들의 ‘죄목’을 기록하고 있다:

살인·간음·절도·거짓말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죄로 분류되는 보편적인 것들이 많았지만 그중에는 흡연·축첩·노비·제사·주술 같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목’에 들지 않았던 행위들도 포함되었다. 주로 유교나 불교, 민간신앙에 근거를 두고 이어져 내려온 생활 습관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 원리에 비추어 ‘비도덕적인 것’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²⁸⁾

죄목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이 죄목이 100년이 넘는 오늘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만인의 눈을 주체화시키고 자신을 객체화시키는 이와 같은 ‘통회자복’은 고백자에게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만인’이 통회자복하는 통성

27) 이덕주, 『한국토착교회 형성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371쪽.

28) 이덕주, 『한국교회이야기』(서울: 신앙과지성사, 2009), 152-153쪽.

기도가 되었던 것이다: “통성기도는 1) 다수가 소리를 내면서도 혼돈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기도, 2) 각자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남과 함께 드리는 기도, 3) 형식을 파괴하면서도 또 다른 형식을 만드는 기도였다.”²⁹⁾ ‘관상’의 위치에 ‘통성기도’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통성기도를 통한 ‘몸’에 대한 통제는 한국 개신교가 금욕적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지만, 오늘날의 통성기도는 몸에 대한 통제가 아닌, 몸의 욕망의 확대로 변형되었다. 통성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남과 함께 드리는 기도” 곧 개인의 ‘소원’과 다른 이들의 ‘소원’을 중보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 때는 1970-80년대 도시화가 진행될 때이다. 당시에는 빌리그레함, 로버트 슬러 등 미국의 근본주의적 부흥사들이 소개되면서,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는 삶”등이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 청중들의 귀에 공명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어 나가던 드와이트 무디의 중심 메시지는: “나는 기독교인이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³⁰⁾였다. 무디의 정신적 제자들인 빌리 그레함과 로버트 슬러의 성공담론은 70-80년대 도시화와 더불어 교회성장의 기본 동력이 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1976년 감리교회에서는 5천교회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다. 장로교회는 2012년까지 300만 구령운동에 돌입한다고 했다. 즉, 신도들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욕망을 교회의 성장 담론으로 연결시켰던 것이다. 이제 목사는 신도들의 욕망을 통제하는 사제로 등장한다. 막스베버가 자본주의의 리더를 말할 때, 관료적, 카리스마적, 전통적 지도자로 구분하였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카리스마는: “의례와 영웅주의에 기대고 있으며, 사회에 규범적이거나 모범이 되는 사람”³¹⁾이라고 했다. 즉, 평균 이상의 능력과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으로, 그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카리스마 때문에 그를 따른다는 것이다. 막스베버가 관료적 지도자를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대립시킨 것은 전자는 ‘이성’에 기댄 인물이고, 후자는 이성이 아닌 ‘의례’나 ‘영웅적’ 행위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은 ‘인본주의’ 비이성은 ‘신본주의’라는 엉뚱한 담론도 목사의 카리스마적 위치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며 나타났던 기적, 신유 등도 신도들을 끌어모으는 주요 광고수단 이었고, 이에 성공이데올로기가 겹쳐지면서, 목사의 카리스마는 확장되었던 것이다.

관상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주체화하고, 나의 몸을 개체화함으로써, 자신을 관조하며 통제하는 작업이었고, 초창기 ‘통성기도’ 역시 자기 ‘몸’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한 눈물의 기도였지만, 이제 통성기도는 자기 몸의 ‘욕망’을 주체화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는 틀로 작용하였다. 이와 동시에 타자와 교회에 대한 중보기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목사가 통성

29) 이덕주, 『한국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374쪽.

30) Jeremy Rifkin (with Ted Howard), *The Emerging Order: God in an Age of Scarcity* (New York: Putnam, 1979), p.155.

31)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p.215.

기도의 중보제목을 제시한다. 보통, 이들이 요구하는 기도 제목은 10가지 이상이다. 기도 후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목사의 압도적인 기도소리, 옆 사람의 웅얼거리는 소리, 자신이 말하는 소리 그리고 때때로 들리는 박수소리 등이다. 말하는 주체 곧 권력의 위치에 목회자가 존재하고, 들음 곧 복종의 위치에 신도의 기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목사에 의해서 10여 가지의 ‘욕망적’ 기도제목은 다시 ‘정리기도’로 선별되어 끝이 난다. 즉, 대중 앞에 ‘말함’을 주도하는 이는 ‘목사’다. 그리고 ‘선별적’ 정리기도를 추출하는 이도 ‘목사’다. 10여가지를 벗어난 신도들의 ‘웅얼거리는’ 기도는 모두 제외되고, 목회자가 ‘선별한’ 기도으로 끝이 난다. 신도들은 기도를 하지만, 사실 ‘침묵’했던 것이다. 기도 제목을 ‘선별’하고 정리기도로 끝을 내는 ‘말함’ (권력)과 신도들의 ‘침묵’ (복종)을 통해서, 목사의 ‘욕망’은 교회 전반에 권력을 확장한다. ‘카리스마’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즉, 말함 (권력)과 침묵 (복종)은 ‘기도회’라는 권력의 배치로 카리스마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권력의 구성이 단지 ‘담임목사’에게만 집중되어 있을까?

2. 말함—권력 / 침묵—복종: 설교와 아멘 할렐루야

2007년 7월 8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Again 1907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1부는 성만찬과 예배로 진행되었고, 2부는 공연이었다. 1907년을 다시 맞아보자는 의도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회개, 자복’이 그 중심이었지만, 2부의 공연은 회개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축제분위기였다. Again 1907년은 ‘부흥’을 곧 회개를 통한 다시 삶 (re-vival)에서 ‘성장’으로 비틀어 놓았다. 그래도 주최측에서 형식적으로나마 ‘회개’의 퍼포먼스로 예배를 만들어 놓았다. 당시 설교는 사랑의 교회 원로목사인 옥한흠 목사가 맡았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을 수 있고, 땅의 복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 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에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절대로 예수님도 바라시는 것이 아니요,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³²⁾

옥한흠 목사는 설교 후에 “내가 죄인입니다”를 반복했고, 역시 통성기도식 기도회를 인도했지만, 그는 1907년의 통회자복의 형태로 기도회를 이끌어 나갔다. 옥한흠 목사의 설교에서, 그의 오랜 목회의 경력 속에서, 말함 (양-권력)과 침묵 (음-복종)의 배치 안에서, 설교자와 청중의 권력 분배형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목회자의 말함 곧 설교는 청중의 침묵을 깬 말함 (권력) 곧, ‘아멘’을 기대하면서 설교한다. 그런데 이 침묵을 깬 말함인 ‘아멘’은 설교자의 순간적 침묵 곧 복종을 만들어 나가며 설교를 통제해 나간다. 말함-권력 / 침묵-복종의 틀이 이런 미세한 순간에 교차되는 것이다. 이들의 말함 혹은 언설 statement를 가능하게 했던 ‘담론’ discourse은 위에서 밝힌, 60-7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에 물질적 성공, 성장에 대한 청중들의 강박 이었다. 이 담론에 기초하여 그들은 ‘아멘’과 ‘할렐루야’를 ‘말’하고, 이 미세한 순간에 목사의 ‘침묵’은 들음은 성도들의 ‘담론’에 복종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청중에 복종하게 되고, 청중의 말함 곧 아멘 할렐루야도 목사의 설교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청중들의 담론을 규정짓는 강력한 담론 중 하나는 ‘반공주의’다. 강인철은 김광수의 해방 직후 압도적 다수의 개신교인들이 공산주의를 배격했던 담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이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내세우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고로 여하한 종교도 말할 당한다. 공산주의는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산주의가 한국을 지배하는 날에는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등등.³²⁾

공산주의에 대한 이들의 ‘담론’은 “1930년대 길선주나이명직같은전천년왕국설신봉자들이공산주의를말세의징조나사탄으로보고있었고, 전쟁 이전부터 북한에서 월남한 이들을 중심으로 ‘북의 공산정권을 종말론적 적그리스도로 단정’³⁴⁾하기도하였다. 전쟁 후,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하면서, 영락교회와 같이 이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세워졌고, 이들은 반공주의의 절대적 신봉자가 되었다. 후에 개신교에 있다가 신종교운동을 일으켰던 박대선이나 나운몽 등도 “한반도 중심의 세계구원, 나아가 한반도 재림주 출현”³⁵⁾ 등과 같은 반공적, 민족주의적 담론을 만들어 나갔다. 위에서 김홍도 목사 등이 노골적으로 표현한 ‘반공주의’는 자신의 이념적성향도강한영향을끼치고있지만, 청중의 담론과 그들의 ‘말함’이 강력한 영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설교의 말함, 곧 아멘과 할렐루야는 설교자의 기대섞인 순간적 ‘침묵’을 통해 설교를

32) 김지방, 앞의 책, 137-138쪽.

33) 김광수, 『한국기독교교회재건사』(서울: 기독교문사, 1981), 189쪽, 강인철, 앞의 책, 63쪽에서 재인용.

34) 위의 책, 68쪽.

35) 위의 책, 73쪽.

통제해 나가고, 또한 목사의 설교는 아멘과 할렐루야를 기대한다. 권력은 말함과 침묵을 통해 설교자와 청중을 상호 통제해 나간다. 기도회를 통한 목사의 절대적 카리스마와 설교를 통한 권력의 배분은, 일주일에 단 1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있는 기도회와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그리고 심방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한 교회의 정치참여는 기도회를 통해 목사의 카리스마 뒤에 숨겨져 있는 욕망과 권력이 상호작용하는 설교와 ‘아멘’을 통해 강화되었던 것이다.

권력에 의해서 강화된 담론인 반공주의, 산업화, 성공 등은 철저하게 우경화된 이념적 바탕이다. 참회적 ‘통성기도’가 카리스마적 목사에 의해 욕망 확장의 장으로 변형된 이래,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의 자유주의적 성향과 북한과의 대량트분위기, 사회 각층의 진보적 목소리는 한국교회에서 강화된 권력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V. 나오는 말

‘말함’과 ‘침묵’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중세 기독교의 전통으로 서구의 사목권력을 형성시켰다고 푸코는 말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통성기도회가 성취와 성장의 욕망의 장으로 바뀌고, ‘말함’과 ‘침묵’이 목사와 청중의 관계로 전이되었다. 이유는, 한국의 전통적 문화 안에 존재하는 유교와 샤머니즘의 공존이 ‘말함’과 ‘침묵’의 틀을 형성해 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서도 밝혔듯이 “Again 1907”은 ‘회개’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행사이지만, 회개는 중간에 사라지고 축제로 끝을 내었다. 왜냐하면, ‘부흥’을 향한 목사의 ‘욕망’이 ‘말함’을 통해 또한 집회 기획부의 ‘침묵’을 통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Again 1907”도 회개를 통해 당시의 감동으로 회귀하자는 의도가 아닌, “당시와 같이 숫자부흥을 이루자”로 변형된 것이다. 왜냐하면, 계보학적으로 1907년은 ‘회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뜻하는 기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07년을 형상화한 대형 프랭카드가 2007년도 내내 교회의 외벽을 장식했던 것이다.

‘말함’과 ‘침묵’은 목회자의 과도한 카리스마를 내어서, 상명하복의 권력시스템을 만들어 내었다. 카리스마는 한국 기독교회의 성장주의와 반공주의와 결합되어서 결국 오늘날과 같은 정치현상, 우경화된 ‘기도회’정치를 생산해 낸 것이다.

이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푸코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권력의 재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 개신교의 권력에 관한 재배치를 생각해야 하는 새로운 글쓰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인철. 『한국개신교와 반공주의』. 서울: 중심. 2007.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비전교회를 위한 비전』. 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선교국. 2009.
- 김지방. 『정치교회』. 서울: 교양인. 2008.
- 니니안 스마트, 김윤성 옮김. 『종교와 세계관』. 서울: 이학사. 2006.
- 미셸 푸코 외. 이희원 옮김. 『자기의 테크놀로지』. 서울: 동문선. 1997.
- 이덕주. 『한국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 이덕주. 『한국교회 이야기』. 서울: 신앙과지성사. 2009.
- 2008년도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당회자료
- 2008년도 기독교 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당회자료
- Rabinow, Paul. ed.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s. 1984.
- Katz, Steven T. ed. *Mysticism and philosophical analy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Foucault, Michel. *Religion and Culture*. Jeremy R. Carrette(eds.), New York: Routledge, 1999.
-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Vol.1*, New York: Random House, 1990.
- Kendall, Laurel. *Shamans, Housewives, and other Restless Spiri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7.
- Rifkin, Jeremy (with Ted Howard). *The Emerging Order: God in an Age of Scarcity*. New York: Putnam, 1979.
-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원고접수: 2009년 9월 5일 1차심사: 11월 12일 게재승인일: 12월 1일

연구자 소개: 최대광

① 전공: 종교학 (영성신학) / 소속: 감리교신학대학교

② 관심영역: 신학, 영성, 문화학

③ 주요논저: 창조영성과 영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 종교다원주의를 넘어서: 신비적 체험을 향한 영성 다원주의를 향하여, 창조영성적 시각에서 본 생태주의, 근본주의를 넘어서.

④ E-mail: d-kchoi@hanmail.net

Abstract

Church and Power: Power Structure of Speak and Silence

Choi, Daekwang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Chung Dong First Methodist Church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critiques on Korean Church's strong political rightist tendency and its ahistorical nature, there is no serious study on the Church's mirco-power structure. This thesis chases the Church's devotion to rightist power since 1990's. To analyze this phenomenon, this thesis introduces Michell Foucault's genealogy, and the writer reorganizes the structure of pastoral power with "speak and silence." This thesis applies the structure of pastoral power with Korean family system and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Since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the religions of Korean family, Confucianism and shamanism dichotomize active or speaking territory with that of passive or silence. This thesis applies the binary opposition with Korean Church's preacher and audience relationship. Preachers induce audience to say 'Amen' and audience respond preachers. Through this process, they exchange power, and control each other. The exchange of power through speak and silence reinforces current KoreanChurch's culture of strong anti-communism and capitalistic success oriented nature. If power structure formed by speak and silence fail to be overcome, Korean Church's ahistorical process and ultra rightist tendency will go on.

Key Words: Spirituality, Religion, Church, History